

제26회 화순운주문화축제 열린다!

지역민과 함께 도장 밭노래, 능주 들소리 어우러지는 화순 무형문화의 향연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구복규)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힐링축제 제26회 화순운주문화축제 「운주유람·구름도 쉬어가는 곳」을 오는 11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단이 처음 위탁받아 '싸목싸목 운주마실'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고 지역문화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화순운주문화축제는 올해도 새로운 이야기와 풍성한 체험으로 돌아온다.

올해 축제는 '지속 가능한 문화축제'를 주제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환경과 상생, 참여를 키워드로 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선보인다. 탄소줄이기 친환경 마켓, 감탄장터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큰 변화)는 지역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수공예품,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직거래 상생마켓으로, 유통망

을 거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와 지역의 생산자 이야기를 담아낸다.

또한 탄소줄이기, 나눔 실천 등 친환경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를 제안한다.

감탄 장터에서는 개인용 텀블러·에코백·음식 용기 등을 지원하면 '감탄코인'을 받아 장터에서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물물교환하는 나눔장터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화순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0월 18일 발매식을 연 서포터즈 「화순새움」이 감탄장터의 현장 운영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 안내,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한다.

이들은 화순의 문화와 사람, 자연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가치를 전하는 화순형 서포터즈로,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민이 직접 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

는 참여형 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석탑 사이의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서 열리는 공연무대 '시간을 잊는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리 기록'으로 노동요를 재구성한 특별 무대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융합 공연으로 펼쳐진다.

음악적 사운드에 스토리텔링 중심의 토카가 더해져, 관객이 단순한 청취자가 아닌 이야기의 한 장면 속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무대로 구성된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울려 노동요 '밭자랑'을 부르며 춤추는 엔딩 세레모니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화순운주문화축제는 지역민이 주도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화 생태축제로 거듭난다. 「화순새움」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단체와 예술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종전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사람, 이야기를 잇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모두가 함께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화순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중환 기자

가을 영암에서 한국미술 빛낸 남도 거장들 만난다

김환기·천경자·오지호·허백련·허건·김정현 작품 전시

가을, 거장들과 함께 여행 남도의 미술 전통을 음미하는 전시회가 영암에서 열린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10/27-12/7일 상설전시실에서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한국미술을 빛낸 남도화가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대 미술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한 여섯 명의 전라남도 출신 거장들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서울, 해외에서 활동하며 한국 추상미술의 지평을 넓힌 김환기, 천경자, 영암 출신으로 김정현과 남도에 머물며 전라도가 예향(藝鄕)임을 입증한 오지호, 허백련, 허건의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서울OC미술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진도현대미술관, 춘운서옥 등 공공·사립 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주요 작품들을 대어·전시



하게 됐다. 영암군은 전시와 함께 미술관 관람객들이 남도 예술의 깊은 뿌리와 한국미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 문화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남도의 예술정신을 이어온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다. 한옥문화 비엔날레와 함께 이 가을 예술의 정취 속에서 마음의 양식을 기르고, 문화 자긍심도 높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분리배출 RE:VISION' 전시회

환경 융합형 평생교육 성과, 시민 주도하는 창의적 환경 메시지 알리기

전라남도 나주시가 평생 학습과 환경을 융합한 창의적 전시회로 시민 참여형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 전시인 '미디어아트×분리배출 RE:VISION' 전시회를 오는 29일까지 나주문화 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자격 과정 수료자들이 자원순환 교육을 결합해 완성한 창의적 작품 전시회로 기술 학습을 넘어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민 주도형 전시다.

참여 작가들은 일상 속 분리배출의 의미를 미디어아트의 생동감 있는 영상 기법으로 풀어내며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전시 참여자 중 한 작가는 "나주시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환경 메시지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경 보존이라는 인류의 과제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예술로 풀어나간 이번 전시는 평생학습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나주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의식 함양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과 부산 영화의전당은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협력 영상공모전 '불꽃이 타는 곳'을 공동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창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첫 시도로, 미디어아트와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 창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 명칭인 '불꽃이 타는 곳'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한강 작가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실을 '불꽃이 타는 곳'이라고 표현한 데서 착안했다.

주제는 예술가의 창작적 열정과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미디어아트·단편·실험영화·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작품은 반드시 영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한강작가 예술혼 잇는 참신한 영상작품 찾습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부산 영화의전당, '불꽃이 타는 곳' 공모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1주년 기념... 융합 창작생태계 조성 목표

공모 기간은 10월17일부터 11월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총상금은 300만 원이다. 최종 선정된 3편의 영상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외벽 파사드와 유네스코 창의벨트 제5권역(광주송정역),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동시 상영된다.

선정된 작가들은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는 상영회 및 개막식에도 초청돼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누리집(gmap.gwangju.go.kr) 또는 부산 영화의

전당 누리집(www.dureraum.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gmap@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및 부산 영화의전당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전시팀(062-613-6143)으로 하면 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융합 시도와 미디어 다양성 확대를 추진하며, 창의도시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하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은



"이번 협력 공모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와 동서문화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한강 작가의 예술혼을 이어 받은 참신한 영상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다나인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r.kr